**37기 수습 운영진 지원서**

|  |  |  |  |  |  |
| --- | --- | --- | --- | --- | --- |
| 이름 | 편승언 | 이화이언 ID | tmddjs914 | 이화인 인증 여부 |  |
| 전공 | 휴먼기계바이오공학부 | 학번(7자리) | 1970092 | 이수 학기 | 2학기 |
| 연락처 | 이메일 | | tmddjs914@naver.com | | |
| 전화번호 | | 010-8419-6388 | | |

|  |  |
| --- | --- |
| **지원하는 팀** | 마케팅 컨텐츠 디자인 웹 |

**1. 특기 및 활동 경력**

|  |  |
| --- | --- |
| **특기사항** | 내용 |
| 컴퓨터프로그래밍 및 실습 수강  (C언어 학습) | 2019-2학기에 컴퓨터 프로그래밍 및 실습 과목을 수강하여 c언어에 대한 기초적인 공부를 했습니다. |
| 영상 제작 경험  (곰믹스 이용) | 고등학교 때부터 동아리 부장으로 활동하며 동아리 홍보영상을 제작했었고, 가장 최근에는 대외활동 내에 행사를 위해 영상을 제작한 경험이 있습니다. |
| 홍보 스티커 제작 경험 | 대외활동 홍보를 위해 포토샵과 일러스트레이터를 이용하여 홍보 스티커를 제작한 경험이 있습니다. |
| 공예(만들기) 경험 다수 | 평소 만들기를 좋아하여 이화를 상징하는 이화그린을 이용한 여러 공예품(실팔찌, 레진아트 책갈피, 레진아트 장식품) 등을 제작하였습니다. |

|  |  |
| --- | --- |
| 문서작성 | 워드 파워포인트 엑셀 |
| 디자인 | 일러스트레이터 포토샵 애프터이펙트 프리미어 |
| 웹 | HTML/CSS JavaScript |
| SNS |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 블로그 |
| 기타 |  |

|  |  |
| --- | --- |
| **활동경력** | 내용 |
| 지원하는 팀 업무와 관련된 경험은 딱히 없습니다… | |
| 웹 프로그래밍 공부 중 | 얼마전부터 웹프로그래밍에 관심을 갖고 HTML을 공부 중입니다. |

**2. 지원동기**

|  |
| --- |
| 처음 이화여자대학교에 입학했을 때부터, 자매화연인 언니를 통해 ‘이화이언’이라는 이화인들만의 커뮤니티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게다가 학교 인증이 비교적 쉬워서 실제 재학생들 이외에 외부인(일명 ‘훌리’)이 많이 있는 ‘에브리타임’보다, 까다로운 인증 절차를 통해 훨씬 깨끗하고 믿음직한 커뮤니티 환경이 조성되어 있다는 사실이 정말 마음에 들었습니다. 재학생들끼리 자유로우면서도 따뜻한 분위기에서 편하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이화이언’을 재학생들이 직접 운영하고 이끌어 나간다는 사실은 더욱 놀라웠습니다. 커뮤니티를 보고, 구경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저도 커뮤니티를 함께 운영하고 싶었습니다. 수습 운영진을 모집한다는 말을 신입생이었던 작년에 들었을 때는, 네 개의 모집 분야 어느 것에도 해당하는 경험이 없다는 생각에 너무나도 아쉬웠습니다.  그러나 작년에 c언어에 대해 배우면서 프로그래밍이 얼마나 재밌고, 흥미로운 것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더 공부하고 싶었습니다. 그때 다른 공학계열 친구가 웹 프로그래밍을 해보는 게 어떻냐고 추천해주었고 HTML을 처음 공부해보았습니다. 웹사이트를 구상한 대로 즉각적으로 구현해내고, 나만의 웹을 만든다는 것이 얼마나 매력적인 일인지 깨달았습니다. 인터넷 강의를 통해서 혼자서 독학하고, 아직은 조금씩 배워가는 중이라 아주 기초적인 수준이지만,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더욱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화이언’에서 함께 웹 프로그래밍 공부도 하고, 웹을 운영해보면서 경험도 쌓고 실력을 발전시키고 싶다는 생각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

**3. 활동계획**

|  |
| --- |
| 당연히 아직까지는 ‘이화이언’에서 함께 활동해보지 않아 어떤 식으로 회의나 기획이 진행되는지, 각 팀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어떻게 회의가 진행되고 운영이 되는지 아는 것이 없어 모든 것들을 제 상상에 맡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상상과 희망사항을 담아 계획을 세운다면, 제가 이화이언의 (수습)운영진으로 활동하게 된다면 최대한 팀 간 경계를 허물고 자유롭게 의논하고 싶습니다. 저는 웹 팀에 가장 흥미가 있고 경험을 쌓고 싶다는 욕심이 있기에 지원하였지만, 굿즈를 만들고 싶거나 경험이 있다는 점에서 디자인 팀과 협업을 하기도 좋고, 평소 나서서 다양한 행사를 기획하고 주도하는 것을 좋아하는 특성 상 마케팅 팀에게 아이디어를 제공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제가 전에 제작했던 책갈피 모양 등을 따서 새롭게 디자인을 하여, 이화이언 책갈피나 뱃지 등 굿즈를 제작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화이언 라디오’나, ‘교수님과 함께하는 토크쇼’를 배꽃 정원에서 시도해보고 싶기도 합니다. 이런 활동들이 제가 ‘이화이언’에서 함께 활동하게 된다면 제 지원 분야와 상관없이 하고싶은 것들입니다. 정말 부끄럽게도 제가 지원하는 웹 팀과 관련해서는 제가 지식이 없기에, 무언가를 해보고 싶은지 상상조차 하기 어려웠습니다. 다만, 제가 입학하고 나서부터 언니에게 많이 듣고, 저도 ‘이화이언’을 이용하면서 기술적인 측면에서 가장 많이 느낀 점은, ‘이화이언’이 생각보다 자주, 많이 아프다는 것이었습니다. 잘 모르는 제가 많은 말을 덧붙이는 것은 어불성설이기에, 저는 그저 웹 팀에서 활동한다면 ‘이화이언’이 최대한 아프지 않도록 잘 돌보아주고 싶습니다. 열심히 배우고 노력하겠습니다! |

**- 제 지원서를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